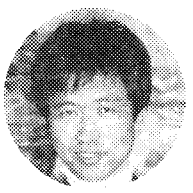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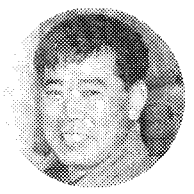
이 관 구(생산자)
충남 서산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한 원래 취지는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서 수입개방화로 부터 우리약재를 지켜내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전시회는 그 어느해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행사였고 마치 십전대보탕 장사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고품질약재 출품 노력

무엇보다도 각 도 약재출품자들이 전시회 개최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고품질약재 출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아쉽다.



정 연 수(생산자)
전북 장수군

해를 거듭할 수록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지는걸 느낄 수 있어 뿌듯하다.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약재배 농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소비자 신뢰도 체감

그러나 행사를 치르고 나면 매년 후회하는 일이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늘 아쉽다.

시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어 일부러 멀리서 전시장을 찾았다가 찾는 품목이 없어 실망하고 그냥 돌아간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죄송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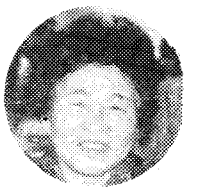
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김 훈 중(소비자)
서대문구 북가좌동

수입약재가 워낙 난무하다 보니 평소에 재래시장등에서 한약재를 사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생약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 수입과 국산약재를 나란히 비교해 놓은 비교 전시관이 무엇보다 유익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한약상가에서 약재를 구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또 직접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가면서 색깔이나 모양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특히 전시된 약재 식물표본들은 색다른 볼거리였다.

약재표본 색다른 볼거리



김 인 희(소비자)
강서구 내발산동

커피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둥굴레차나 치커리, 산수유, 쌍화차는 소중한 우리 먹거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건강차가 아닌가 싶다.

우리 약차맛 세계 수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차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흐뭇했다. 구수하고 은근한 맛도 국제경쟁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세계수준이다. 또 한약재를 이용한 여러가지 식음료들이 캔으로 그리고 비닐팩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이었다.

전시회 이모저모

5일 개회식

○…행사에 앞서 이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생약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전시회가 일과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생약인의 한마당 큰 잔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생약인 스스로 고품질 청정 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운태 전 농림장관 치사

○…이날 개회식 행사에 참석한 강운태 전농림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전시회를 통한 국산약재의 우수성 홍보로 국내생산량도 전시회 개최 전인 지난 93년의 3만 7천톤에서 지난해는 4만2천톤으로 무려 5천톤이나 증가했다』고 치하하고 국제경쟁속에서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이번 전시행사 에서의 농림부장관 행차는 협회 행사 이래 초유의 일이어서 생약재배 농민들은 물론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침로료 시음회

○…각 도 전시관 별로 특색있는 약차 시음코너를 마련, 약차 무료 시음회를 열기도 했는데 둥글레차, 치커리차, 두충차, 쌍화차, 흑향미차 등 그 종류가 다양. 특히 본부전시관에서 마련한 쌍화차 인기가 으뜸이었는데 한약재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겨울추위가 약차 한잔에 눈 녹듯.

한약가공식품 다양

○…국내 재배약재 외에도 한약재를 이용한 캔 음료, 차, 솔잎엑기스등 가공식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였으며 인삼오골계 중탕, 유자청, 그리고 북어 가물치에 한약재를 가미해 탕전한 「숯골전통보어초」등 건강보조식품들도 전시 판매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입·국산 비교전시관

○…제3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행사중 가장 돋보였던 코너는 수입약재와 국산약재를 비교해 놓은 비교전시관. 3백60여종의 생약재 식물표본을 비롯 수입·국산약재 1백여종이 비교 전시된 이 코너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비롯 국산한약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 관심을 끌었다.

약차한잔에 추위 눈녹듯, 가공식품도 다양
비교전시관 가장 돋보여, 우수약재 시상도

우수약재 시상

○…이날 전시회에 출품된 약재중 고품질 약재를 엄선, 각 도별 2점씩, 총 16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상과 협회상을 각각 수여함으로써 재배농민들을 격려했다.

특히 연천군 김인욱 공판장장이 출품한 재배 복령과 율무, 충남 서산군 이관구 공판장장이 내놓은 생반하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농림부장관상과 협회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장관상〉

우수단체상 △(사)한국생약협회 경기도지부 우수상 △김인욱(경기도 연천군 공판장장) △김원복(강원도 삼척시 사무소장) △장지홍(충북 단양군 사무소장) △정영석(충남 금산군 공판장장) △김동윤(전북 무주군 공판장장) △이승엽(전북도 지부장) △박종근(전남 해남군 사무소장) △이형태(경북 안동시 생산농민) △허용호(경남 하동군 사무소장)

〈협회장상〉

△김성배(경기도지부 제군 사무소장) △이종렬(강원도 인관구(충북 생산농민) △임병순(전남 고흥군 사무소장) △제명환(경북 금릉군 사무소장) △차인원(경남 삼천포시 공판장장)이상 무순.

생약인의 한마당

○…전국 생약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생약인의 한마당시간. 생약인들의 숨은 노래실력을 겨루기도 했던 이날 한마당 행사에는 인기가수 주현미와 「소양강 처녀」의 김태희가 초청가수로 출연, 더욱 흥을 돋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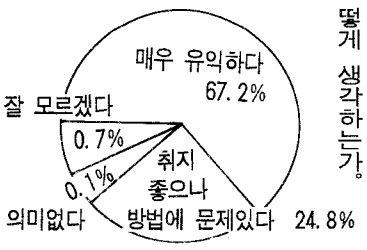
소비자 설문내용

〈1면에 이어〉

한의사 무료 건강상담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2~3명의 한의사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한의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답한 반면 한의사 건강상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에 불과해 묘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는데 한의사 무료건강상담의 의도는 좋았으나 진행상 미숙한 부분이 많았음을 드러냈다.

또 장소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다른 장소가 좋다(27.3%), KBS 88체육관이 교통이 편리하다(42.2%), 잠실역 경기장도 좋다(10.2%), 용산역 광장이 좋다(17%)로 평이한 의견을 보인 반면 행사진행내용에 대해서는 각 전시관에 더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고 안내책자도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전시장에 출품된 약재가 품질은 우수하나 값이 비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과반수를 넘는 53%를 차지한데 비해 품질도 우수하고 값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불과 22%에 그침으로써 고품질 약재의 엄선과 적정가 선정이 전시행사 개최에 앞서 우선돼야 할 선결과제 임을 시사했다.



1、우수국산한약재전시회 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유익하며 2~3명의 한의사로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한의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8백92명 89.2%) △한의사 이외에 약사도 나와서 건강상담을 했으면 좋겠다(83명 8.3%) △잘 모르겠다(25명 2.5%)

2、전시장을 돌아보신 후 약재에 대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값도 저렴하며 다양하다(2백31명 23.1%) △품질 우수하나 값이 좀 비싸다(5백34명 53.4%)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품질도 떨어지고 값도 비싸다(1백79명 17.9%) △잘 모르겠다(56명 5.6%)

3、한의사 무료 건강상담에 대한 의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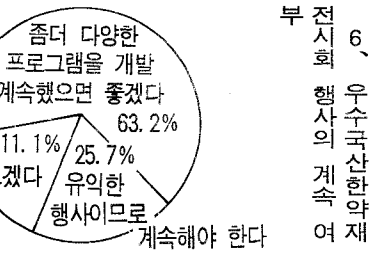
△매우 유익하며 2~3명의 한의사로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한의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8백92명 89.2%) △한의사 이외에 약사도 나와서 건강상담을 했으면 좋겠다(83명 8.3%) △잘 모르겠다(25명 2.5%)

4、장소문제에 대해서

△KBS 88체육관이 교통이 편리하다(4백42명 44.2%) △용산역 광장이 교통상 좋다(1백83명 18.3%) △잠실역도 경기장이 좋다(1백2명 10.2%) △교통이 편리한 다른 장소가 좋다(2백73명, 27.3%)

5、본부 행사 진행에 대한 의견

△비교적 짜임새 있고 안내에 불편이 없다(1백25명 12.5%) △전문가가 좀더 안내를 잘해줬으면 좋겠다(5백82명 58.2%) △안내요원이 불친절하고 장내가 어수선하다(1백97명 19.7%) △잘 모르겠다(96명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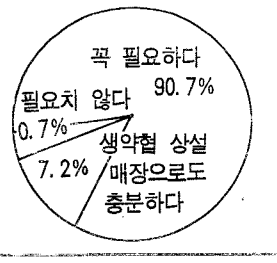


6、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행사의 계속 여부

△유익한 행사이므로 내년에도 계속해야 한다(2백57명 25.7%) △우리생약살리기에 별도움이 안되므로 중단해야 한다(0명 0%)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계속했으면 좋겠다(6백32명 63.2%) △잘 모르겠다(1백11명 11.1%)

7、행사기간은

△5일(25명 2.5%) △7일(2백4명 20.4%) △10일(4백98명 49.8%) △15일(2백73명 27.3%)

8、국산한약재 상설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있으면 편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9백7명 90.7%) △생약협회 상설매장으로도 충분하다(72명 7.2%) △시장이나 건재약방에서 구입하면되기 때문에 상설전시관은 필요치 않다(14명 1.4%) △잘 모르겠다(7명 0.7%)